"탈원전 정책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"

문재인 대통령,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혀

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.

문재인 대통령은 8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"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."라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"지금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. 수년 안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계획들이다." 면서 "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닫겠다는 것"이라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"근래 가동되는 원전이나 건설되는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이다. 적어도 탈원전에 이르는 데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."면서 "그 시간동안 LNG,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 아니다."라고 말했다. "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"라고 덧붙였다.

문 대통령은 "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(추진)해나가더라도 이 정부 기간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."면서 "2030년에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은 20%를 넘는다. 그것만 해도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 높은 나라 중 하나다."면서 "탈원전 정책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"라고 강조했다.

문 대통령은 신고리 5,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, "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,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공사해야 하는 것이냐를 공론 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"이라면서 "이 공론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